

2024. 3. 10.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아볼로 주일

설교: 임동진

본문: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13-14

제목: 주제(14) - 우리 교회의 성례식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12:13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SV) 12:13 For in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Jews or Greeks, slaves or free—and all were made to drink of one Spirit.

12:14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12:14 For the body does not consist of one member but of many.

구약 시대에 있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8 일째 되는 날 행하는 언약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결례’는 손을 씻고, 물건을 깨끗하게 씻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려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는 있지만, 이 구약의 의식을 행해야 할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성례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이후, 서방의 로마 교회(천주교)는 7 대 성례를 만들어 냅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성례는 통과 의례이고, 원칙적으로 사제만 그 성례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제가 없으면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신자가 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죽어서 장례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례식은

권력이 되었고, 무기가 되었습니다. 동방 교회(그리스, 러시아)에서도 성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릭 교회가 지키고, 종교개혁을 통해 나온 개신교 특히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하는 성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가지 뿐입니다. 유아세례 혹은 헌아식은 기독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예식이고 부가저긴 설명이 필요해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두가지 성례의 의미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례: 침례, 주의만찬

성경적인 성례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례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례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신앙), 고백, 개인, 공동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침례와 주의 만찬을 설명하는 지 보십시오.

✓ 예수 믿음을 고백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되다 → 침례식

◆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영어로는 Baptism 이라고 부르지만, 한국말로로는 ‘세례’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들은 ‘침례’라고 부릅니다. 세례와 침례의 차이를 보면,

세례(洗禮)는 ‘죄를 씻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살펴본, 로마 교회(천주교)나 정교회(그리스, 러시아)의 세례를 그대로 가져온 형태입니다.

침례(浸禮)는 그리스어 밥티조(Baptizo)라는 말대로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baptism)을 표현한 말이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 장이 침례식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 6:4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ESV) Romans 6:4 We were buried therefore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6:5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5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like his, we shall certainly be united with him in a resurrection like his.

로마서 6:6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6:6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in order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brought to nothing, so that we would no longer be enslaved to sin.

로마서 6:7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6:7 For 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로마서 6: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6:8 Now if we hav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로마서 6: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11 So you also must consider y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침례식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 **공동체 앞에서 입술과 몸으로 고백하는 것**

침례 받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며,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그 신앙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세례)는 이렇게

◆ **예수 믿음을 고백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되는 예식**

(표준새번역) 12:13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SV) 12:13 For in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Jews or Greeks, slaves or free—and all were made to drink of one Spirit.

침례식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반대 방향도 필요합니다. 즉

✓ 예수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다 →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 우리가 한 몸의 지체 됨을 인정하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새번역) 고린도전서 11:23b-24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ESV) 1 Corinthians 12:23b-24 ...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것을 기억(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는 12 장으로 넘어와서, 본문 12:14 절,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예수의 몸은 다양한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니다.

(표준새번역) 12:14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12:14 For the body does not consist of one member but of many.

27 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1 Corinthians 12:27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f it.

침례식이 한 사람(개인)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주의 만찬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여러 다양한 개인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주의
만찬은 내가 그 몸의 한 부분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된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만찬을 할 때,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빵(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는 내 몸을 대신해 이 땅에 남겨 놓고 가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만찬은

◆ **우리가 예수 피로 새언약 백성됨을 인정하는 것**

(표준새번역) 고린도전서 11:25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1 Corinthians 11: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예수님은 지금 '새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새언약이라고 하니, 옛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은 제한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옛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새언약을 포도주를 만시며 ‘기억(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 때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언약 백성입니다

정리

침례는 예수 믿어 예수와 함께 옛 사람이 죽고,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주의 만찬은 다 같이 한 덩어리 빵에서 조각을 떼어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겨 놓으신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과 서로 다른 생김새를 가진 지체(각 부분 part)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의 포도주(즙)을 함께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 피로 맺어진 가족 됨을 선포하는 새언약식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교회(개신교회)의 성례식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의미를 보시는 슬라이드 한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
성례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침례식 예수 믿음을 고백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되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공동체 앞에서 입술과 몸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 믿음을 고백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것

주의만찬 예수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 됨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예수 피로 새언약 백성됨을 인정하는 것

24 일에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 중에 침례 받으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침례 받는 겁니다.

24 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만찬을 준비하십시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내 형제 자매와 함께 새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24 일, 침례 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 아직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침례 받게 하소서

→ 24 일, 주의 만찬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를 위해 살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기념)하게 하소서

→ 새언약으로 내 형제 자매 된 나의 하늘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4.3.10, 우리 교회의 성례식, 고린도전서 12:13-14)

1. 설교 말씀 중, 나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내용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로마서 6:4-8, 11 을 같이 읽으시고 잠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의 방향, 어떤 삶의 방법을 주셨습니까?
3.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언약'의 예식(주의 만찬)을 기억(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24 일(주일)의 침례식과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가 잘 준비하도록 기도합시다.